마지막 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오빠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엄마는 혼자가 편하다며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 저는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엄마 뵈러 집에 갔었는데 우리 가족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분이 자기 자비로 엄마의 뒷일을 다 봐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구로 이사를 한 것도, 이 진리를 알게 한 것도, 이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려서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복'이 '영생의 복'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사랑의 주님! 줄넘기나 윗몸일으키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체력장 할 때 점수가 안 나와 애를 먹을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아 체육은 꽝인데 그 건강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건강이 60대였다면 지금은 30대라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 보광패션은 파산의 아픔을 딛고 모든 상처를 치유한 후 전 직원 누구나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기 직분에서 15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님께서 150%로 목표량을 올렸을 때처럼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자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마치 내다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때 150% 목표를 채근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니 미리 준비를 시킨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어떠한 귀중한 보석이나 보물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간다면 주님께서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노력할 것입니다.*

변숙자 / 보광패션

입문수기

첫회, 죄 많은 자 불러 구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여주는 사계절과 24절기가 뚜렷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기상(氣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후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풍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높은 산이 적어 하루 종일 그윽한 햇살이 내려 쪼이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른 지역보다 커 당도와 전분이 높은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주쌀 하면 임금님께 진상했던 진상미라고 할 만큼 유명하다. 도자기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한데 아버지께서는 도자기 굽는 기술이 뛰어난 도자기 장인이셨다. 어려서 경남 밀양에서 사람이 와서 아버지를 모셔가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어머니께서는 밭농사를 조금 하시며 지내셨다.

우리집은 1남 5녀인데 그 중 나는 넷째 딸로 태어났다. 옛 어른들이 그렇듯이 부모님도 아들을 하나 더 낳아볼까 기대하시다가 딸부자가 되어버렸나 보다. 내 이름이 남자이름(근식)인 것은 부모님이 아들을 바랬던 염원 덕분(?)이다.

중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으로 생명의 소중함 생겨

나는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율동(무용) 시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육시간만 되면 신이 났다. 달리기만 했다 하면 1등 할 정도로 잘 뛰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운동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내게 전해진 덕분으로 생각된다. 4학년 때부터는 합창부에 들어가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불렀고, 지금도 무궁화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음악을 좋아하는 천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

내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영하러 물가에 갔다가 물이 얕은 곳에서 공놀이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 반대편으로 공이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공을 잡으려고 무심결에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을 뻔 했었다. 그때 어떤 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 다가왔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겨우 목숨을 건진 일이 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 일로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명의 귀중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후로는 절대 수영을 안 하고 있다.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 중구 모 빌딩에 있는 유익렬 법무사사무소에 나가게 되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한 것인데 사무실을 몇 개월 다니던 중 갑자기 집에서 일이 바쁘니 내려오라고 하여 도자기 굽는 일을 6개월 정도 도와 드리게 되었다. 가족들이 가내수공업 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남을 쓰자니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나를 부른 것이다.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면서 고향에 있었는데 나의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여 하루는 친구랑 재미로 점을 보러 가게 되었다. 점쟁이가 나보고는 우리 집은 동쪽인데 서울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고 하였고, 친구에게는 고향에 더 있으라고 하였다. 귀인이라면 내게 무언가 좋은 행운을 불어넣어줄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슬성신절 2부행사에서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근식 님

점을 본 후 우연히 서울로 가게 되어 시집간 둘째 언니 집에서 또 다시 KAL빌딩 옆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취직하게 되었고, 은행업무(대출업무)를 맡게 되어 서울 공릉동 북부지원 쪽에 있는 은행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른 법무사사무실에 다니는 김영민 언니(김영민 승사)를 만나게 되었다. 영민 언니는 나에게 참 진리 말씀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강의를 들어보지 않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언니를 따라간 곳이 바로 서울 남대문 영화빌딩 4층에 있는 남대문사무실이었다. 그곳에 계시는 승사님과 영민 언니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헤어져 그 다음날부터 주님 비디오 말씀을 듣게 되었다. 퇴근 후 5분에서 10분 거리에 서울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21일을 다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1일 되는 날 둘째언니가 외출을 하려고 하니 어디 가지 말고 집을 보라고 하여 전화로 영민 언니에게 오늘 예배는 참석 못 하겠다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보러 가니 하루 빠졌기 때문에 21일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하여 21일을 두 번 했다. 곤달걀이 안 되고 날달걀이 되려면 21일을 꼭 채워야 하는데 중간에 하루 빠졌으니 무효가 되어서 다시 21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슬 은혜와 생수 은혜 체험

당시 남대문사무실은 전도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영민 언니가 전도된 후 이곳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나도 영민 언니와 같이 평일 날은 퇴근 후 서울사무실에서 비디오로 예배를 보고, 일요일은 역곡 본부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예배를 볼 때 주님의 음성은 세상 교회 목사와는 전혀 다른 영생의 확신에 찬 음성이 느껴졌으며, 그것은 나에게 강한 생명력을 부어주는 듯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풍이 불어온다고 뉴스에서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태풍을 막는다"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하시면 방송에서는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곧 그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버리거나 서해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일요일 예배를 보는 중에 이슬이 뭉게뭉게 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였다. 너무 신기했다. 마음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슬은혜가 들어간다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불성신과 생수성신과 이슬성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수가 시원하게 연결된다는 생수연결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시간에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둥둥 뜨는 느낌이 들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회사와 남대문사무실과 제단을 다닐 때 주님 설교 말씀이 황금 종소리로 들릴 만큼 주님의 은혜 속에 지냈다. 황금은 변하지 않으니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종소리는 음성을 비유하는 것이므로 황금종소리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구세주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다.

꿈에 주님이 당신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 하루는 꿈을 꾸었다. 나는 좀체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꿈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빨리 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풍채는 주님 모습 같았다. 그때는 '이게 무슨 꿈일까?'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꿈을 꾼 얼마 후 집(여주)에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가 근식이가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졌다고 걱정하며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언니로부터 듣고 겁이 덜컥 났다. 왜 가까운 교회 다니지 역곡까지 먼데 다니느냐, 혹시 이상한 데 아니냐며 그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약 6개월 동안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사람들에게 비밀로 숨기고 제단을 쌓고 있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만나면 다시는 제단에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둘째언니가 전화 받는 틈을 타서 청바지에 티만 입은 채로 영민 언니 집으로 갔다. 영민 언니가 언젠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무조건 영민 언니 집으로 갔다. 영민 언니 집은 역곡인데 전에 한 번 가보기는 했지만 찾을 수 있을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래도 무작정 갔다. 역곡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려고 서성이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여 그 택시를 같이 타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바로 영민 언니의 친동생 인숙 언니였다. 인숙 언니는 당시 제단에 나오지 않을 때였다. 내가 밤늦게(약 11시 경) 택시 승강장에서 서성이는데 그 여자분이 "아가씨, 어디까지 가요?"라고 물었다. "한도아파트 앞에 간다"고 대답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서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같이 타고 와서 내려서 나는 영민 언니 집을 찾아 갔고, 그 여자분은 자기집으로 갔다. 그런데 내가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영민 언니 집이 아니었다. 그래서 헤매는데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언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영민 언니"라고 대답하니 "우리 언니가 영민인데…"라고 하며 집으로 데려갔는데 영민 언니가 있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인숙언니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근식 / 보광패션

홍익인간 · 인내천으로 정도령의 5대공약 수출하자

단군개국 이래로 수천 년간 보릿고개라는 춘궁기(春窮期)를 겪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경우 이삼년 이상 연속하여 풍년이 든 적이 거의 없었다. 속담에 '7년 흉년은 없다'라는 말을 보아 풍년보다 흉년이 더 많았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도통(道通)하신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한국 땅에 풍년이 듦으로써 이제 〈보릿고개〉는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일조량, 수량, 해충방재, 수확을 앞둔 시기의 태풍 여부 등 여러 가지 자연조건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구세주는 흉년 들지 아니하고 매년 풍년 들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는 공약과 '태풍을 막겠다'는 공약을 아울러 발표한 것이다.

그럼 먼저 풍년을 위해서 장마철에 비를 못 오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장마는 양력 6월 15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로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마 기간은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월 15일 이전에 오는 비를 봄비라고 하고 7월 15일 이후에 오는 비를 가을비라고 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장마철 시작되는 6월 15일 이전에 모내기를 한다.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가 모내기철로 보면 된다. 모내기철에 비가 와줘야 논에 모를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모를 심은 후, 장마철 당하는데 장마철에 비가 계속해서 지루하게 한 달 내내 오게 되면 논에 심은 모가 뿌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그 해는 흉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마철이 끝나고 7월, 8월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여러 차례 휩쓸고 가면서 벼가 익기도 전에 전부 쓰려 뜨려 흉년 들게 한다. 이렇게 한반도는 장마철과 태풍으로 두 해 풍년 들면 꼭 한 해는 흉년이 들어, 단국개국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거듭되어 오는 동안 서민들에게는 보릿고개라는 한 맺힌 배고픔의 서러움이 있어 왔던 것이다.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근 36여 년에 이르기까지 쌀농사가 매년 3천만 석 이상 계속 풍년을 이루는 기적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장마철이 되는 6월 15일과 7월 15일 사이에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실종된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마른장마', '번개장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게다가 7월, 8월에 한반도에 지나가는 태풍의 경로가 동해안 내지 서해안으로 기역자 형태로 급선회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만 끼쳤던 경우가 많은 것도 풍년 들게 한 큰 요인이기도 하다. 혹자는 온난화 영향으로 장마철이 실종되었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온난화는 기후 조건을 뒤죽박죽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하는 주범임을 고려할 때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규칙적인 장마실종과 태풍실종은 뭔가 불가사의한 자연현상이랄까 어쨌든 쌀농사만큼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진짜 구세주가 출현하시어 놀라운 기사이적(5대공약)을 행하고 계십니다

2017년 1월 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구세주 5대공약 광고

거듭해서 말하자면 장마철 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하고 장마철 이후에 내리는 비를 가을비라고 한다(매우梅雨: 매화나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질 때에 지는 장마라는 뜻으로, 대략 '6월 중순께부터 7월 상순께까지에 지는 장마'를 일컫는 말). 물론 장마철 이후 즉 7월 15일 이후에 오는 비를 어떻게 가을비라고 하느냐 할지 모르나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러왔다는 것이다. 1980년도 이후부터는 봄비가 제 때에 내려 모내기하기 좋게 하였고 그 다음에 가을비가 많이 내려 배추농사 풍년 들게 하여 김치 먹는데 지장이 없게 하늘이 돕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연속풍년〉이 불가능하다. 과학영농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벼 재배면적조차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벼의 수확량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천만 석을 돌파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1980년 이전의 경우 3천만 석을 넘는 해가 드물었다).

이는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경작지에 생명의 원천이자 권능의 증표인 이슬을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곡류뿐 아니라 과수의 열매도 크고 풍성하게 해 주시니 구세주님의 풍년공약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지금까지 풍년을 위해서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풍년을 위해서 '한반도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는 공약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다. 구세주의 5대 공약 가운데 태풍을 막고 장마를 못 지게 하는 것은 풍년을 위한 기상조건을 충족하는 부수적인 공약에 불과하다. 구세주께서는 '남한 쌀농사가 한해 3천만 석만 초과하면 풍년이다'고 기준까지 임의로 정해주신 적이 있다.

태풍의 발생은 바다를 가열하는 태양에너지에서 비롯된다. 태양빛은 생사(生死)가 있는 이 세상의 빛인고로 마귀의 빛이다. 구세주의 중성광에 의해서 멀지 않아 태양빛이 소멸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신선세계가 된다. 그 세계로 바뀌는 과정 중에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넘쳐 언제 어느 순간에 치명적인 괴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는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도 있다. 그러한 태풍은 여름철 해수면 온도를 낮추어 어장에 있는 고기가 고온으로 폐사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또한 농사가 잘 되게 논밭을 뒤집어엎듯이 바닷물을 뒤집어 건강하게 하며 적조를 퇴치한다. 이렇게 비를 몰고 오는 태풍은 극심한 가뭄도 해갈해주는 까닭에 '효자태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것이다.

구세주가 위대한 것은 원자폭탄의 1만 배에 달하는 힘을 가진 태풍의 진로를 지그재그로 꺾는가 하면, 대륙으로 덮친 태풍을 약화시켜 환경정화역할로 이끄는 동시에 인명과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와 실력이다. 구세주가 태풍을 막지 않는다면, 전선줄이 끊어지고 암흑천지가 될 것이며,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그리고 건물파손과 흉작으로 지금까지 착실히 쌓아 올라가는 경제성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한편 미일, 중러 4대강국의 이권다툼에 한반도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늘 긴장 가운데 사는 한국인에게,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한 구세주의 공약 또한 너무나 고맙게 여겨진다.

정도령의 권능을 해외로 수출하자

구세주 정도령께서는 태풍을 막을 때에도 되도록이면 중국이나 일본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정도령을 영접하고 정도령의 권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러면 알게 모르게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만 이런 5대공약(공산주의 제거, 장마 소멸, 태풍 실종, 남북전쟁 불가 등)의 혜택을 누릴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구세주 정도령의 권능을 방송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정도령의 사상 즉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자유율법을 받아들이게 하여 천재지변과 괴질 그리고 전쟁과 기아에서 해방시키자.*

박태선 기자